

秋史 金正喜의 濟州 流配期 諺簡과 그 文學的 性格

한 장 훈*

1. 서 론

秋史 金正喜(1786-1856)는 조선후기 실학사상사에서 흔히, 經書 및 金石·典故의 고증을 위주로 하는 소위 實事求是派를 대표하는 인물로 주목을 받아왔다. 그는 청조 고증학의 학문적 성과를 받아들이는 동안에, 차차 古文學에서 今文學으로 주의를 돌려 魏源과 같은 학자의 학문을 참된 實事求是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시 우리나라 연해에 출몰하는 이양선과 점고해가는 국민적 불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국민의 주체적 확립이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그는 이상적·오경석 등 중인 출신의 인재들과 교유하고, 그들을 지도해서 일정한 사상적 영향을 줌으로써 지금까지의 양반 중심의 실학사상을 중인층으로 넘어가게 하였고, 이 중인층들은 이후 실학사상과 개화사상을 연결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¹⁾

이런 秋史 金正喜에 대한 학계의 연구 성과는 대체로 보아서,

(1) 철학적 관점에서의 연구,²⁾

(2) 예술론적 관점에서의 연구,³⁾

(3) 문학론 및 詩에 관한 연구⁴⁾ 등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 고려대 강사

1) 이우성, 「실학연구서설」,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 비평사, 1982) 참조

2) 서형요, 『김완당의 철학 사상 연구』 (성대 석사논문, 1978)

3) 한철희, 『완당 김정희 예술고』 (고려대 석사논문, 1968)

최완수, 『추사실기』, 『한국의 미』 17권 (중앙일보사, 1985)

4) 호승희, 『추사 김정희의 문학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3)

그리고 이를 통해 드러난 金正喜의 모습은 단순한 예술가 혹은 학자가 아니라 시대의 전환기를 산 신지식의 기수로서,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받아들여서 신문화의 전개를 가능하게 한 선각자로서 평가되기도 한다.⁵⁾

여기서는 이런 기존의 연구 성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특히 시기별로는 그의 濟州 流配期를 중심으로 하고, 대상으로는 편지 특히 諺簡을 중심으로 하여, 그 文學的 性格을 검토해보기로 한다.⁶⁾ 이런 연구의 의의는 문집 기록의 이면에 나타나 있는, 濟州 流配라는 개인에게 있어 건디기 어려운 고뇌의 시기를 대처하는 김정희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입체적이고 살아있는 秋史 金正喜論을 완성하기 위한 기반을 세우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논의의 순서는 金正喜의 濟州 流配 過程과 그 생활상을 살피고, 이런 점이 어떻게 諺簡에 드러나는지, 그리고 이 시기 諺簡들 특히 부인에게 보내는 諺簡은 어떤 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기로 한다.

2. 金正喜의 濟州 流配 過程과 生活相

조선조 형벌제도의 하나인 流配는 그 발생이 주로 정치적 상황인 당쟁에 기인한 것이 지배적이다. 流配는 정치적으로 중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형까지는 과하지 않고 원격지로 보내어 종신토록 다시 귀환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로서 특히 濟州와 같은 섬에는 죄명이 특별히 중한 자들에게 해당되었다. 당쟁이라는 조선조의 정치체제는 일종의 생존 경쟁

김혜숙, 『추사 김정희의 시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9)

정우봉, 「김정희의 시론 연구」, 『어문논집』 29집 (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90)

5) 김일근, 「김정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6) 諺簡의 자료는 김일근, 『인간의 연구』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1) 소재의 것을 사용한다.

한편, 김정희의 인간을 다룬 기존 연구는 다음의 논문들이 참고될 수 있다.

최문환, 『추사 김정희의 인간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1987)

김기현, 「추사 산문에 나타난 부부상」, 『고전문학연구』 4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88)

김봉욱, 『추사 김정희의 유배서간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교육), 1990)

쟁적 성격을 띠면서, 이 결과로서 생긴 流配라는 제도는 조선조의 정치인의 현실에의 집착을 거세시키고 정치인의 의미성과 존재성을 박탈하는 기능을 하였다. 한편, 원래 流配의 형을 받게 되면, 도사 또는 나장들이 지정된 유배지까지 압송하여 고을 수령에게 인계하고, 수령은 죄인을 保授主人에게 위탁한다. 보수주인은 보통 그 지방의 실력자로서 한 채의 집을 배소로 제공하고 유죄인 감호의 책임을 졌으며, 그곳을 배소 또는 적소라고 하였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그 고을 부담의 특명이 없는 한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⁷⁾

金正喜의 말년은 家禍로 점철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40년 尹尙度 옥사를 대사헌 金弘根이 재론하여 金魯敬을 탄핵했는데, 이에 윤상도 부자는 추자도 유배에서 소환되어 처형되었다. 김정희도 이에 연좌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사형까지 받게 된 것을, 친구인 우의정 趙寅永의 구명 탄원으로 동년 9월 제주도 대정현에, 정해진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형벌인 위리안치를 당했다. 9월 27일 해남을 떠나 당일에 제주도 화북 포구에 도착한 55세의 그는, 10월 1일 대정현에 당도하여 포교 宋啓純의 집으로 적소가 정해지게 되었다. 후일에 姜道淳의 집으로 이적되어 창천촌으로 옮겼다. 김정희는 이후 이런 流配 生活에서, 1848년 12월 6일에야 비로소 풀려나, 9년간의 濟州 流配 生活을 하게 되었다.⁸⁾

그리고 1851년 현종의 遷廟 문제로 권돈인의 예론에 연루되어 다시 北靑으로 유배되었다가 그 다음해에 풀려나, 결국 그의 일생에 있어 말년 11년간은 流配로 점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그에게 학문과 예술에 더욱 수양을 쌓는 기회가 되었으며, 백파와 초의 등 선사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선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후 그는 경기도 과천에서 노후를 보내다가 71세를 일기로 일생을 마쳤다.⁹⁾

金正喜가 濟州 流配 9년간을 보낸 대정현은 제주도의 서남단에 있는

7) 전봉덕, 「유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8) 양순필, 『제주유배문학연구』 (제주문화, 1992) 참조. 한편, 『탐라문화』 6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7)에는 秋史 金正喜 특집이 실려있는데, 여기에 실린 논문들을 통해, 우리는 金正喜의 濟州 流配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9) 서경오, 「추사 김정희」, 『한국인물유학사』 4권 (한길사, 1996) 참조.

4 濟州島研究 제18집(2000)

벽지로서 교통의 연락이 극히 어렵고, 토지도 척박했던 곳이다. 또 바람도 사나운 곳이고, 습기도 많아서 질병이 많아, 생활하기가 힘든 곳이다. 따라서 그가 流配 기간 중에 많은 질병에 시달렸다는 것은 이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대정현의 풍토 때문이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조선시대 가장 열악한 유배지의 하나였던 濟州의 풍토와 풍속을 알 수 있는 기록은 그리 흔하지 않다. 다만, 金淨의 <濟州風土錄>을 통해 16세기 경의 濟州 風土와 李健의 <濟州風土記>를 통해 17세기 경의 濟州 風土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520년에 濟州로 流配되었던 金淨은 그의 문집 『冲庵集』 권4에 <濟州 風土錄>을 남겼다. 이 기록은 金淨이 1519년 기묘사화로 인해 진도에서 제주로 이배되었던, 1520년부터 사사되던 1521년까지의 생생한 체험 기록이다.¹⁰⁾ 여기서 濟州의 기후를 언급한 부분을 보면, 여기서도 濟州가 겨울이 덥고, 바람이 세어 병들기 쉽고, 비오는 날이 많아서 물기가 많으며, 가을들은 초가가 많고 새끼로 얽혀 있으며, 집이 깊고 침침하다고 했다. 풍속에 대해서는 濟州人들이 귀신을 숭상하고 무당이 많으며 뱀을 신으로 받들고 있어서, 流配人들이 뱀을 죽여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뱀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못한다고 개탄하였다. 말소리가 본토와 다를 것을 지적하고, 노루·사슴·꿩·참새·전복·오징어가 많고, 사기 그릇과 유기는 없다고 하였다. 또한 가장 이상한 것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에서 소금이 부족하여 진도나 해남 등지에서 무역해다가 쓰고 있는 점이라 하였다. 이 기록을 검토해보면, 작가의 눈에 비친 당시 濟州의 사회상은 문명의 암흑지대라 할 수 있다. 학문하는 이가 거의 없고, 유교나 불교의 교화가 미치지 못하고, 무교가 사회적 비리에 편승하는 반문명의 양산지로 보인 것이다.

『葵窓集』 권5에 수록되어 있는 李健의 <濟州風土記>의 내용은 대략 15단락으로 구분된다.¹¹⁾ 제1단은 제주의 지리적 위치와 해풍과 조류를

10) 양순필, 「冲庵의 濟州風土錄 小考」, 『어문논집』 23집 (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82)

11) 양순필, 「李健의 濟州風土記 小考」, 『어문논집』 21집 (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80)

이용한 내왕의 사례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2단은 도내 도처에 산재한 뱀에 대한 두려움과 뱀 신앙의 일면을 보여 준다. 제3단은 기후와 관의 민폐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4단은 제주의 목축상황과 목자의 어려움을 그리고 있다. 제5·6단은 제주의 농경 생활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는 불모지이기 때문에 본토와는 다른 방식의 농사가 되고 있음을 밝혔다. 제7단은 제주 여인의 풍속에 대하여, 제8단은 굴의 종류와 진현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9·10단은 해산물과 잠녀의 풍속 및 관원의 횡포를 들었다. 제11단은 민간 신앙의 일면을, 제12단은 동식물 현황을, 제13단은 탐라개국신화를, 제14단은 김만일의 둔마에 대한 설명을, 제15단은 濟州에서 流配 생활을 하는 자신의 심경을 술회하였다. 이 기록은 당시 濟州의 풍속과 상황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며, 濟州의 민속을 연구하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대략 살핀 것처럼, 金淨과 李健의 기록은 공식적 기록 자체가 희귀한 濟州의 모습을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민속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관심있는 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들 기록은 대체로 이방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타자의 입장에서 濟州를 바라보고 있는 공통점을 지닌다. 濟州에 발 붙히고 사는 이들이 보여 줄 수 있는 주체적 시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19세기에 濟州에 流配되어 9년이란 적지 않은 세월을 보냈던 金正喜의 生活相과 濟州와 濟州人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진지한 흥미를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다. 기존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金正喜를 연구했던 양순필은, 그의 제주 유배 생활의 실제 생활상을 다음 세 가지 사항으로 정리한 바 있다.¹²⁾

즉 (1) 비록 정치적으로 불운하여 流配를 당했다 하더라도 충남 애군의 충정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2) 지나친 귀소지향적인 태도보다는 일단 유배지의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체념과 적응의 생활을 보여 준다. (3) 유배 생활을 자기 완성을 위한 소중한 창조적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12) 양순필, 「귀양문학, 그 고통과 집념의 승화」, 『문학사상』 (1987년 1월호)

이런 지적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체로 수긍되는 바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점이 구체적으로 자료상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데에 있다. 위의 연구에서는 이런 점이 자료와 더불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이런 일반화된 개념을 구체화시키고 확인하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사항을 전제하고, 아래에서 金正喜가 濟州 流配期에 남긴 諺簡의 문학적 성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3. 濟州 流配期 諺簡의 性格

文學을 정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文學이 작가와 독자 간의 의사소통체계'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諺簡을 포함한 편지글을 文學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그것의 문학적 성격을 논하려는 작업이 무의미하지는 않다. 단지 그 갈래의 성격상 작가와 독자간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부분이 가감없이 표출된다는 데에, 그 문학적 진실과 형식적 주관성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金正喜의 諺簡은 34통(보유 6통 제외)이다. 여기서 濟州 流配期에 지어진 작품을 살펴 보면, 20-32신은 부인 禮安 李氏에게 보낸 것으로 부인이 병사할 때까지 2년 여에 걸쳐 왕래했던 고뇌의 기록들이고, 33-34신은 며느리에게 보낸 것이다.¹³⁾ 이 중에서 특히 31-32신은 아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써보낸 슬픈 사연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한편, 현전하는 문집에는 그가 유배지인 제주도에서 쓴 수많은 漢文 편지가 전해지고 있기도 하다.¹⁴⁾

여기서는 우선 金正喜의 諺簡을 통해 濟州 유배지에서 느끼는 그의 괴로운 생활상과 감정 토로,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家族과 家門의 안부에 대한 관심과 그것의 의미, 타자로서 자

13) 김일근, 『언간의 연구』(건국대학교 출판부, 1991)

14) 漢文 편지 자료는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완당전집』 1권(솔, 1995)에 번역되어 실려 있어, 비교적 용이하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이 9년간 발디디게 된 濟州와 濟州人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피기로 한다.

1) 濟州 流配의 어려운 生活相과 그 표출

金正喜는 초기 濟州 流配 생활을 몹시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다. 더군다나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위리안치의 형인지라,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상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諺簡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거처의 문제, 음식의 문제, 의복의 문제는 이런 어려운 流配 生活의 직접적 표현이라 보아서 무방하다.

… 초일일 대경 비쇼의 오오니, 집은 넉넉히 용신호를 만흔 디을 어더 한 간방의 마로 잇고 집이 경하야 별노 도비도 홀 것 업시 드러소오니, 오히려 과하온 듯 하옵. 먹음시는 아직은 가지고 온 반찬이 잇소오니 엇지 견디여 가올거시오. 디복이 쇼산이오니, 글노 쏘 견디듯 하옵. 쇠고기논 절귀하오나 후 가다가 어더 먹을 도리도 잇논습가 보옵. (제20신)

제주 유배지에서 첫번째로 보낸 諺簡의 내용이다. 앞에서는 다른 이들에 비해 배멀미를 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이후 배소의 거처와 음식의 문제를 말했다. 내용에서 짐작되듯이, 여기서는 아내에게 근심을 주지 않으려는 발신자의 의도가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발신자의 태도는 시간이 조금 지나자 갑자기 변모하게 되는데, 이는 주의를 요한다.

… 나는 샤라 잇다 하올 길이 업습. 여귀 지내논 모양은 일향 별병은 업소오니, 완인하기 엇지 다 이르오며, 먹는 것도 그 모양이오니, 그리 저리 아니 견디여 가옵. 일것 하야 보낸 촌물은 마른 것 외의난 다 상하야 먹을 길이 업습. 약식 인절미가 앓갑습. 슈이 와도 성이 오기 어려온디 일곱 달 만의도 오고, 쉬어야 두어 달 만의 오옵난 거시 엇지 성히 올가 보옵. 셔울서 보낸 침채난 원악 염을 과히 훈거시라 변미는 하야시나, 그러도 침채의 쥬런 입이라 견디여 먹어습. (제21신)

이 기록을 보면, 流配 초기에 金正喜는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특히 음식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어찌 견디어 보겠던 제20신의 내용과는 상반되게, 제21신에서는 제대로 먹지못해 힘이 없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그린다. 서울에서 보내준 음식도 상해서 먹지 못해 안타까와 하며, 그나마 맛이 변한 김치를 먹으며 자신을 위로하는 모습이 애처롭다. 그러나 거의 한평생을 조선조 지배세력이던 양반으로서 살아온 그는, 경제적으로 나약하고 수동적인 이전의 생활 습관을 결국 고치지 못하고, 모든 의식의 문제를 서울의 아내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의 기록들은 金正喜가 流配期에 입던 의복도 모두 서울에서 계절마다 만들어 보내거나, 심한 경우 수선까지 해서 보냈던 사실을 보여준다.

... 의복은 세초선의 보내신 거슨 다 기호 거시니 도로혀 옷습. 도로 보내올 길도 업습고 다 아직 두어 오며, 양지완 편의 온 의복은 여름소리가지 와 소오니 아직 대여 입소울가 호오며, 즉금 입난 저고리가 마치 흥나홀 가지고 입소오니 과히 더럽고 더러 히여져 입기 어려오나, 다른 야로 것 밧고아 입기 어렵고 조곰 어려오나 아니 견디읍. (제21신)

... 겨울의 벼슬 옷습 올녀보내오니 진작 쏘 고쳐 보내셔야 되개습. 여기는 겨울 거슬 여름의 유의호여야 되개습. 바지는 무명것 고쳐 보내고 명지바지는 보내지 마옵. 여기 토쥬바지 흥나 잇는 것슨 조곰 독겁기 입지 아니호고 아지 두어습. 두루막이나 둘 다 고쳐 보내읍. (제22신)

이상의 諺簡 내용을 통해 우리는 金正喜가 流配의 어려움을 견디기 힘들어 했고, 양반으로서의 편한 일상생활을 벗어나야하는 流配 生活을, 서울의 부인에게 의존한 채 수동적으로 보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金正喜에 대한 연민과 함께,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정치적 도덕적인 우월감에 젖어있던 조선조 양반들이 실제 경제 생활에서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金正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

도 한다.

… 나는 친구세에 별노 가감이 업시 먹고 자고 무스 무려한 사름쳐로 지니 오니 엇지 이닷 지완 흥은고 흥오며, 강경이 비편의 글월은 보옵고 보니 오신 찬뉴들은 슈대로 즈시 밧다 곽별 흥신디로 먹소오니, 서울 맛시라 비위가 열니오나 이러하게 흥야다가 천니 밧기서 구복을 위하야 흥옵는 일이 도로혀 어분의 과흥옵. (제27신)

위의 諺簡은 濟州에 유배되어 두번째 해를 맞이하여 쓴 것이다. 여기서 발신자는 이전 즉 전해에 쓴 諺簡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다시 말하면 현실 생활에 어느정도 적응하고, 편안하고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보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에서 보낸 음식을 먹는 것은 이전과 같으나, 그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다름을 확연히 느낄 수 있는 윗 구절에서 우리는 流配라는 현실을 수용하려는 발신자의 모습을 본다.

이처럼 金正喜는 이후에 流配라는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일단 유배지의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적응의 생활 태도를 보여 준다. 이것은 물론 流配가 장기화되면서 그가 더 이상 조정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가 알고 있었던 탓도 있지만, 그의 諺簡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꼼꼼하면서도 침착한 성품에서도 연유한다고 보인다. 이런 태도는 그가 대정현 流配 9년간에 걸쳐 많은 학문적 예술적 업적을 남긴데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이후 金正喜의 내면적 변모를 더 분명히 보여주리라 기대되는 諺簡 자료가 더 이상 발굴되지 않았음은 하나의 아쉬움이다.

2) 家族과 家門의 안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편지가 본래 안부를 묻는 것을 그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을 상기한다면, 사실 金正喜의 편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家族과 家門에 대한 걱정은 오히려 당연하다 할 수 있다. 金正喜는 가장으로서 9년간을 집

과 고향을 떠나 있었고,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끊임없이 家族과 家門의 안부를 걱정했다. 이는 특히 부인과 며느리에게 보낸 諺簡에서 자주 발견되는 특징의 하나이다. 아마 수신자의 특성상 그런 요소가 더 짙게 드러났을 것이다.

... 계서가 그리하여 큰 병이 나시면 말이 되개습. 즉금으로 오니 이만스가 짐샤름이 평안들 하고, 계서도 더욱 몸을 도라보와 전보다 더 보전하여야, 이천나 대히 밧기 잇는 ㅁ음을 위로를 훔 거시니, 미양 목전의 일만 심가 마오시고 ㅁ이 심각하고 크게 ㅁ음을 먹어 아무썽록 편안히 지내 ㅎ음.
(제20신)

... 계서는 이사이 엇더함을 관겨치 아니라 ㅎ오나 관겨치 아니 ㅎ음 이가 잇습. 아마 먼디 샤름이라고 숨기는 듯 ㅎ오며 속미음은 년ㅎ야 자시습. 계서가 몸을 보호ㅎ야 가난거시 날 보호ㅎ야 주난 것시오니 그리 아오시 ㅁ.(제22신)

이처럼 항상 그 안부를 걱정하던 부인 禮山 李氏는 金正禧가 해배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濟州에서 보낸 31-32신의 편지가 부인이 세상을 떠난 줄 모르고, 그 건강을 걱정했던 것이라 함은 앞에서 지적 했거니와, 부인이 죽었음을 알고 流配 生活의 상당부분을 부인에게 의지했던 金正禧의 충격은 특히 컸었던 것 같다. 그는 유형수임에도 상복을 갖추고 통곡하며, 제문인 〈夫人 禮安 李氏 哀逝文〉을 쓰기도 했다.¹⁵⁾

金正禧는 어려서 백부인 김노영에게 입양되어 경주 김씨 집안의 종손이 되었으나, 이후 김노영이 별세하자 생부인 김노경을 모시고 살았다. 1831년 김노경도 탄핵을 받고 古今島에 위리안치 되었었는데, 이때 金正禧는 직접 古今島에 가서 뒷바라지를 하기도 했다. 이런 배경으로 하

15) 그 내용의 일부가 김기현, 「추사 산문에 나타난 부부상」, 『고전문학연구』 4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88) p.p. 36-37에 인용되고, 해설되어 있다.

여, 金正喜는 濟州 流配期에도 끊임없이 祭祀같은 家族과 家門의 대소사를 챙기고 살폈다. 이런 기록들에서는 특히 현실의 고난에 힘들어하고 안타까와하는 발신자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기도 하다.

… 지난 달 회일 제사 지나오시니 천천철택지 혼 망극지통 더욱 원통순박하야
즉지의 중어 모르고 시브오니, 고금 천하의 이런 사롬의 정니 광경이 어
디 잇스올잇가.(제22신)

… 목전 급급흔 것시나 흐읍고 가면서 혼게 흐읍. 제일 제스 츠리는 범
빅을 급히 가라치게 흐고 제스 흐은 거슬 알게 흐읍.(제28신)

家門을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는 양반 사회에서, 流配라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한 이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대는 대개 아들이나 손자에게 기우는 관심이 될 것이다. 이들이 학문에 힘쓰고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流配에 의해 흔들린 家門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流配人들이 가진 공통된 생각이었다.¹⁶⁾ 金正喜의 濟州 流配期 諺簡 곳곳에도 이런 모습이 보이지만, 특히 아들을 순산한 며느리에게 보내는 다음의 諺簡 부분은 그 내용에 더욱 절실한 바가 있다.

… 그사이 순산을 흐고 아들을 나랏다 하니, 종손의 경스 우리집의 처음으로 보는 痘종이 권우 흐신 듯, 네 몸의 와서 저리 유공유복하야 종석의 광채가 되니 문운이 츠츠큐 열녀 가는듯, 원외의서 더욱 경헝흐고 오히려 즉시 보지 못흐는 것슨 궁금흐나 잊지흐리.(제34신)

3) 濟州와 濟州人에 대한 인식

생전 겪어보지 못한 流配地에 죄인의 신분으로 처음 들어서게 되면,

- 16) 가령, 강진에서 18년간 流配 生活을 했던 정약용의 편지에도, 아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드러내는 부분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주요 자료는, 박석무 역,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창작과 비평사, 1991)을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누구나 그 낯설음에 당황할 것이다. 金正喜도 이에 예외는 아니어서, 諺簡 곳곳에 流配地의 낯설음이 배어있음을 알 수 있다. 산채를 먹지 않는 것을 보고 괴이한 풍속이라 한다든지, 시장이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김치를 얻어 먹지 못해 서울에서 보내준 맛이 변한 김치도 그런대로 참고 먹었다든지 하는 기록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산채는 더러 있나 보다 여의 샤름은 전순먹지 아니 호오니 고이흔 풍속 이읍. 고소리 쇼로장이와 두름은 잇기 혹 어더 먹습.(제21신)

… 도모지 저지와 장이 업소오니 범거시 미미가 업소오니 이셔도 모로고 어더 먹기 어렵습.(제21신)

… 침치도 그리 변미가 되지 호야 침치를 순전 못 어더 먹더니 이리 먹소오니 먹기는 먹으나 그져 과한 듯 호읍.(제27신)

그러나 金正喜는 곧 자신의 인품으로 하여 자기 스스로를 조절할 뿐 아니라, 유배지의 주민들과도 곧 일정정도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그는 濟州에서 많은 제자를 키웠고, 또한 濟州 儒林과도 사제관계를 형성한다. 특히 濟州 儒林과의 사제관계는 그 폭이 넓고 詩文과 書藝는 물론 전각에 이르기까지 그의 가르침이 행사된다.

이 고을에 사는 이생 시형은 나이 젊고 재주가 뛰어나서 이 학문을 하려고 결심하였는데, 그 뜻이 펴 견고하여 막을 수가 없으므로 이에 그를 올려 보내노니, 시험삼아 함께 연마해 보아라. 비록 그의 견문은 넓지 못하나 거기에 더 연마만 해놓으면 충분히 이 곳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¹⁷⁾

이곳의 풍토와 인물은 혼돈 상태가 아직 벽파되지 않았으니, 그 우둔하고

17) 『국역 완당전집』 1권 (솔, 1995) p. 153.

무지함이 저 어만·하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또한 무리를 초월한 기제가 있기는 하나, 그들이 읽은 것은 <통감><맹자> 두 종류의 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 두 가지 책만 하더라도 어디에나 구애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와같이 責備할 수 있겠습니까. 타고 난 본성은 남북이 서로 다를 것이 없으나, 다만 그들을 인도하여 개발시켜 줄 스승이 없으므로, 슬피 여기고 불쌍히 여겨 이와 같이 탄식을 하는 것이 정히 이곳을 위해 이른 것 입니다.¹⁸⁾

流配로 인한 외로움과 절망감은 많은 유배자들에게 자기 상실의 고통을 안겨 주기도 했으나, 濟州人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본토의 문화 전달자였다고 할 수 있다. 지리적인 이유로 하여 조선조의 濟州는 행정적 문화적 소외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쟁에 휘말린 고위 정객과 지식인들이 제주에 유배와서 직접 간접으로 제주인들의 학문과 예절을 교화함으로써 濟州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했던 것이다.

위리안치의 경우, 유배자는 유배지의 주민들과의 인간적인 접촉과 교류가 불가피하다. 金正喜는 이런 기회를 빌어 제주인들과 흥학교화의 동화를 통하여 죄인이라기보다는, 타향의 견문을 넓히면서 인격을 수양하고 학문과 예술을 닦는 등의 교육자 혹은 자기 완성자로서 많은 성과를 남겼던 것이다. 즉 그는 유배지의 현실에 권위적으로 관계하기보다는 현지의 사정과 조화하여 동화함으로써 현지인들의 지식과 교양을 자극하고 교류하면서, 소위 유배지 문화권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¹⁹⁾ 여기서 우리는 金正喜라는 인물의 위대한 점을 또 하나 찾아낼 수 있다.

4. 결 론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秋史 金正喜의 濟州 流配期 諺簡의 文學的 性格

18) 『국역 완당전집』 1권 (술, 1995) p.p. 208-209.

19) 양순필·양건진, 「추사의 제주 교학활동 연구」, 『탐라문화』 6집 (제주대 탐라문화 연구소, 1987)

을 살펴 보았다.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諺簡을 통해서 볼 때, 金正喜는 초기 濟州 流配 生活을 몹시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적응하는 자세를 보였음을 같이 보여 준다. 이는 이후 金正喜의 濟州 流配 生活을 평가하는 데 주요한 지침이 된다.

(2) 諺簡을 통해서 볼 때, 金正喜는 부인을 포함한 家族과 家門의 안부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인에 대해서는 주로 건강에 대한 문안으로, 家門에 대해서는 각종 경조사를 신경쓰는 형태로 드러난다. 이는 조선시대 양반 가문의 가장으로서 짊어진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데 대한 답을 제공한다.

(3) 諺簡과 漢文 편지를 통해 볼 때, 金正喜는 濟州와 濟州人을 타자로 인식했다. 이는 16세기 金淨이나, 17세기 李健이 보여준 태도와 동일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이들 타자와 관련시키는 興學敎化의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濟州에 流配地 文化圈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 있을 만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상의 고찰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고는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1) 우선 자료의 주석 작업이 마저 이루어져야 한다. 필사본의 발견과 그 활자화가 김일근 교수의 몫이었다면, 이의 주석화를 통한 자료화는 우리의 몫이 될 수 있다.

(2) 다음은 濟州 流配期 이외의 작품 성격을 밝히는 데에 있다. 그리고 다음은 漢文 편지를 더불어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적어도 김정희의 경우, 그 표기문자의 선택은 수신자의 사회적 성격에 달려 있었다고 보이며, 다른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諺簡이 문집 수록시 제외된 것을 통해, 당시의 관습을 재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The study on the ChuSa Kim Jeong-Hee's Ungan especially written during Cheju exiled period and it's literal characters

Han, Chang-hun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Korea University

summary

Kim Jeong-Hee's Ungan(the letter written in Korean) indicate that he felt painful during Cheju exiled period. But as the time goes, he realized his circumstances and showed a attitude to be adapted.

He, through Ungan, showed the continuous concerns on his family, including his wife. It provided an answer on What is the responsibility of an aristocratic patriarch in Chosun Dynasty.

Through his Ungan and Chinese epistles, he regarded Cheju and the Cheju people as a third party. But he tried to held an attitude to prosper learning and educate the people, so he made an achievements-Cultural zone of an exile- on that culturally isolated island.